

2007 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의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믿는이들

메시지 23

그들의 현재—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

성경: 롬 8:28-30, 딤후 1:9-10, 벧전 5:10, 벧후 1:3

- I.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는 세 단계—시작 단계, 진행 단계, 완성 단계—가 있다. 시작 단계(거듭남)의 첫번째 방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롬 8:30.
- II. 믿는이들은 하나님 자신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다—행 2:39, 롬 9:11, 갈 5:8, 살전 5:24.
- A.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엡 1:4-5, 벧전 1:1-2.
1.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을 그분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 부르시어 그들을 그분의 원래의 의도로 돌아가도록 이끄신다—계 4:11, 엡 1:4-5, 11.
 2.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정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예정하신 각 사람을 부르신다—롬 8:30.
- B.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28 절, 딤후 1:9.
1.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뜻에 따른 그분의 계획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과 위치를 공유하여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이다—엡 1:5, 9, 11, 3:11.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이다—롬 8:28-30.
- C.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다—딤후 1:9-10.
- D.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미덕에 의해 우리를 부르셨다—벧후 1:3.
1.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찬란하게 표현되심—이다—계 21:10-11.
 2. 미덕은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에너지와 힘이다—벧전 2:9.
- E.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냄 받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5:10, 살후 2:14.
1. 믿는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요소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2.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영원한 부르심을 전하는 것이다—롬 8:30, 10:14-15.
- III.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보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8:28.
- A.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러하다—계 4:11, 딤후 1:9-10.
- B.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내시어 그분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둠은 죽음 안에 있는 사탄의 표현과 범위이고, 빛은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과 범위이다—벧전 2:9.

- C.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분별하시어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 자신께로 성별하시기 위한 것이다—히 3:1.
1.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하늘에 속한 높은 부르심 안에서 믿는이들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성도들이 된다—고전 1:2.
 2. 성도들은 거룩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세상에서 그분 자신께로 부르시는 분의 부르심을 통해 산출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별하심이요 거룩게 하심이다—롬 1:7, 히 3:1, 13:12-13.
 3. 거룩하고 높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은 신성한 소망—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부르심이다—엡 1:18, 4:4, 골 1:27.
- D.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전 1:9.
1.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인 교통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신 것은 그분 안으로 부르신 것을 의미한다..
 2. 이러한 교통은 우리와 삼일 하나님 사이의 하나뿐 아니라 모든 믿는이들 사이의 하나를 포함한다—요 17:21-23.
 3. 우리가 하나님의 이들의 교통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누리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누리시는 것을 의미한다.
- E.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리스도의 누림과 그리스도의 고난 둘다가 포함된다—벧전 2:20-21.
- F.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부르셨다—골 3:15.
1. 그리스도의 화평은 새 사람 안에 있는, 화평이 넘치는 하나이다—엡 2:15.
 2.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으로서 우리 속에서 중재하시는 일을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고 그분의 한 몸을 위해 지체들 서로간에 화평을 유지하게 하신다.
- G.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살후 2:14.
1. 주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아버지를 표현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동일한 위치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것이다—요 17:22.
 2.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 즉 신성한 분을 표현하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 H.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벧전 5:10.
1.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영광, 즉 공간과 시간 모두에 있어서 무한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2.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그분의 영원한 표현 안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기적이다.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르심 받았다.
- I.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살전 2:12.
1.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목표가 있으며, 이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왕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유일한 목표이다—마 6:33.
 2.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안으로 들어갈 것이다—13 절 하.